07 연례보고 일년동안의 전시 08

광주비엔날레 200배 즐기기

D-3

"자기만의 관람 동선 만드세요"

제7회 광주비엔날레를 더욱 즐겁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안내 책자를 미리 챙기는 등의 관람 요령이 필요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전경.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제7회광주비엔날레가 오는 5일~11월9일까지 '연례보고'(Annual Report)라는 타이틀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 대인시장, 광주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36개국 127명의 작가들이 현대 미술의 진수를 담은 1천여점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을 아무 계획 없이 보려면 꼬박 이틀을 투자해도 부족하다.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관람 동선과 일정을 스스로 짜야 짧은 시간에 최대한 즐길 수 있다.

▲안내 책자 꼼꼼히 챙기세요=이번 전시는 작품이 자유롭게 배치돼 있어 정해진 관람 동선이 없다. 관람객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볼지'를 맡겨 놓은 셈이다. 그동안 정해진 관람 동선을 따라 작품을 수동적으로 봤다면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숲(전시장) 속에서 자신의 눈을 사로잡는 나무(작품)를 스스로 찾아내서 봐야한다. 이 때문에 안내 책자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람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작품 배치 순서 따라 관람=관련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 작품이 배치된 순서에 따라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넓은 전시 공간에 펼쳐져 있는 작품들을 배치 순서대로 관람하다가 눈에 띄거나 맘에 드는 작품을 찾아 감상하면 된다. 이해하기 힘든 작품은 성인·청소년도슨트,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특히 미술학도 등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광주비엔날레의 특성상 단체관람객이 몰리는 오후 시간은 피하는 게 좋다. 또 외지 관람객이 많은 주말·휴일도 피해 느긋하게 관람하는 것도 요령이다.

▲다양한 할인 혜택 누리세요=좀처럼 보기 힘든 전시, 며칠 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충분히 감상하려면 '행사전기간 통용권'을 추천한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서 관람할 수 있지만 '행사전기간 통용권'은 전시기간(66일) 아무 때나 관람이 가능하다. 가격은 어른 3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 가족 단위 관람객은 '가족 입장권'(2만4천원)이 저렴하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은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2천500원인데 '가족입장권'을 사면 4인 가족이 많게는 1만원을 덜 내도 된다. 또 KB카드, 광주은행 VISA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로 입장권을 구입하면 기존 가격보다 15% 할인받을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오감 만족' 관람 위한 전문가 조언

"세상과 소통…작품의 의미 새겨보라"

조인호 부장

"현대 미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비엔날레는 미술전시 형식을 빌려 세상을 들여다보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실험적 작품과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초대됐다. 혼성과 이동·교합·복제·신종이 거듭되는 다문화사회의 현상들이 작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기획한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의 '문화정치학'을 이해해야 한다. 미술이 사회·정치적인 많은 문제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단위로 전시를 쪼개지 않고 장르에 관계없이 작품을 섞어 놓은 것도 이 시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전시는 '길 위에서' '제안' '끼워넣기'라는 개념으로 선정된 작가와 작품들이 하나로 섞여있다. 관람객들이 공간과 작품들 사이의 관계를 자유롭게 살필 수 있도록 꾸몄다.

도슨트들의 설명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낯설지만 각각의 시각언어로 말 걸어오는 여러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세상의 또 다른 삶이나 현상, 무수한 활동들을 이해하는 문화현장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작품 설명·작가 안내 보고 순서 정하라"

최춘웅 교수

"자기만의 관람 동선을 먼저 만드세요"

책을 읽을 때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읽는 독자가 있는 반면, 뒷 페이지나 중간부터 골라서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이처럼 다양한 감상법이 가능하도록 전시공간이 설계됐다.

공개된 전시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둘러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개별 작품을 공간에 가두지 않고 다른 작품들과 어우러지게 배치했다. 관람객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전시장 이리저리 거닐며 작품을 감상하면 된다. 다양한 동선은 관람객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획일적이고 직선적인 동선이 갖는 단점을 극복했다.

이 때문에 관람객들의 '자기 동선 만들기'가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핵심 관람 포인트이다.

또 전시 설계 과정에 전시장 입구에 넓은 빈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전시 안내물도 비치했다. 이곳이 바로 관람객들이 자기 동선을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인 셈이다. 차분하게 작품 설명과 작가들에 대한 안내를 보고, 관람 순서를 정하면 된다.

다양한 작품이 초대된 만큼, 관람객들이 최대한의 기쁨과 감동을 맛볼 수 있도록 자신만의 관람 동선을 천천히 음미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전시 설계자·건국대 건축설계학과〉

■ 주차장 등 편의시설

5개 전시장 연결 셔틀버스 운행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관람객들의 편안한 전시장 방문과 관람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전시 공간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무등산 의재미술관 등지로 분산돼 있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관람객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지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 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에서 출발해 광천동유스퀘어~김대중센터~시청~송정역을 2시간 간격으로 오가는 순환버스 1대를 운영한다. 또 매일 오전 9시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을 출발해 대인시장~광주극장~의재미술관 을 오가는 주요 전시관 연결 순환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주차 장소는 비엔날레 주차장(600면)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 주차장(400면), 전남도교육청 주차장(300면), 광주문예회관 주차장(700면), 비엔날레 정문 주변도로(50면) 등 5곳 총 2천405면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은 시내버스 용봉 83, 상무 64, 송정19, 일곡 38, 금남 58, 금남 56, 금남 57, 첨단95번을 타면 된다.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종합안내소'도 운영된다. 종합안내소는 미아보호소와 함께 운영되며 비엔날레 전시관 앞, 굴다리 입구, 시립미술관옆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응급환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진료소(비엔날레관 1층)도 있다.

노약자와 유아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을 위해 행사장 각 출입구(3곳)에 휠체어, 유모차, 대여소도 설치해 놓았다. 물품보관소는 전시관 입구에 설치돼 있다. 일행을 찾거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종합안내방송본부에 연락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비엔날레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단체 관람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30분 가량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전에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입장권은 매일 개관 30분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폐관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 ▲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 앞 ▲광주시립미술관 앞 등 3곳에서 판매한다. 전시장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